

金亨徹
(環境庁계획조정 국장)

自然生態界 기본조사를 하면서

開發과 保全의 調和,
이것은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命題다.

흔히 快適한 環境을 환경보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한다. 당연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쾌적한 환경은 어떻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아마도 “快適”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조건으로 되어 쾌감을 일으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정의될 것이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生을 영위하는데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쾌감을 가지는 환경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가지 길이 있겠지만 環境行政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우선 環境汚染度가 環境基準을 達成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흔히 공해행정(公害行政)의 주축을 이루고 후자는 주로 환경행정의 주관심분야라고 하겠다.

환경오염도가 환경기준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은 안간힘을 썼다.

국토면적 98천㎢

인구 42백만명

“

快適한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生을 영위하는데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쾌감을 가지는 環境상태라고
할 수 있다.

”

2천년이전에 인구는 5천만명선에서 그 증가를 멈추게 될지라도 소득수준의 향상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산업도 더욱 발전해야 했고 국토도 더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른바 개발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능력을 발휘하여 오염을 저감시킨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환경기준을 훌륭히 달성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산업화와 국토확장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었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갈구하는 쾌적한 환경은 이룩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아름다운 설악산의 절경을 파괴한다면 환경의 쾌적성은 기대할 수 없다. 설사 설악산에 입지한 산업시설이 전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그래서 환경기준의 달성과 等價的으로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는 命題가 된다.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연생태계 기본조사를 착수하면서,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국토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규모면에서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98千km²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요컨대 이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직결된다. 이땅을 개발하는 목적이 소득수준의 향상에 있음이 틀림없지만, 그 소득수준의 향상이 금덩어리를 보관하는 이증금고를 갖기 위한 것은 아닐테고 오로지 복지구현, 즉 쾌적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무작정 한 국토의 개발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데에서만 진정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토이용의 효율극대화가 바로 그 뜻이겠으며 개발가치 곡선이 보존가치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국토이용가치의 극대화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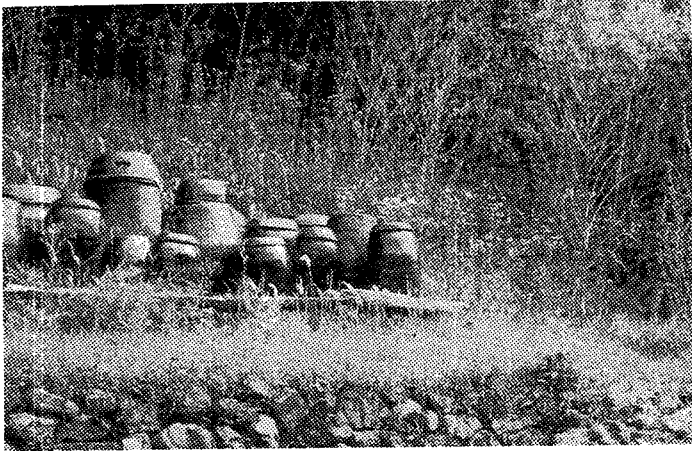
자연생태계기본조사의 의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환경행정측면에서는 이러한 국토이용 가치의 극대화점을 찾아낸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우선의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기술과 기량을 닦아왔고 소득의 향상에 입맛을 돋구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한걸음 앞을 생각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다.

땅바닥에 떨어진 은전을 줍는데 정신이 팔려 힘드는 것도 잊고 비탈길을 오르다가 어느순간 낭떠러지인지도 모르는채 곧두박질쳐서 주는 은전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다.

우리나라 자연생태계는 구체적으로 전국을 조사한 일이 없기는 하지만 흔히들 세계적으로 뛰어난 곳이라 한다.

“



우리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는
흔히들
세계적으로 뛰어난
곳이라 한다.

”

단편적인 일부지역 조사에서도 증명되지만 여건이 그렇다고들 한다.

水中生態系는 東隆起西沈降으로 西海岸은 세계 3대 리아스식해안의 하나이고 淺海인데다 溫帶의 유일한 리아스식해안이어서 種의 다양성이 세계굴지이고 陸上生態는 溫暖帶緯도에 形象이 多樣하여 이역시 種의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90년까지 행하게 될 이번 조사가 규모면에서나 조사내용면에서나 의욕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 결과 또한 훌륭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진정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는 國家百年立計에 굳건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원래 生態系調査는 關聯 학문분야가 매우 다양해서 이를 수행하게 되는 전문가를 동원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업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분야의 교수님들을 위시한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代價나 利益을 떠나 헌신적으로 계획에서부터 조사와 분석에 까지 자기일처럼 열의를 보여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아직 어떤 분야는 전문가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반드시 찾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生態學分野에서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가능하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UNDP (국제개발기구)의 지원도 기대한다.

단기간에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체계화하여 이 거창한 일을 착수케 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이에 보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환경 담당자들의 책임이라 믿는다.*